

# 중 우한 식당 돼지국밥서 '박쥐 사체' 동등...현지 발각



▲ 23일(현지시간) 후베이징스(湖北)는 우한의 한 식당 돼지국밥에서 박쥐 사체가 나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우한의 한 식당 돼지국밥에서 박쥐 사체가 나와 현지가 발각 뒤집혔다. 23일(현지시간) 후베이징스(湖北)는 우한의 한 식당 돼지국밥에서 박쥐 사체가 나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식당에서 돼지국밥을 사다 먹은 일가족은 일단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지난 10일 우한시 신저우(新洲)구에 사는 첸모씨는 집 아래층 식당에서 파는 돼지국밥을 포장해왔다. 그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국밥을 드셨지만 특이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은 국밥은 밀봉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온 가족이 다 함께 국밥을 먹으러 밥상을 차렸다. 그런데 국밥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떠올랐다. 첸씨는 "국밥을 데우려고 보니 검은 물체가 떠다니고 있었다. 새끼 박쥐 사체였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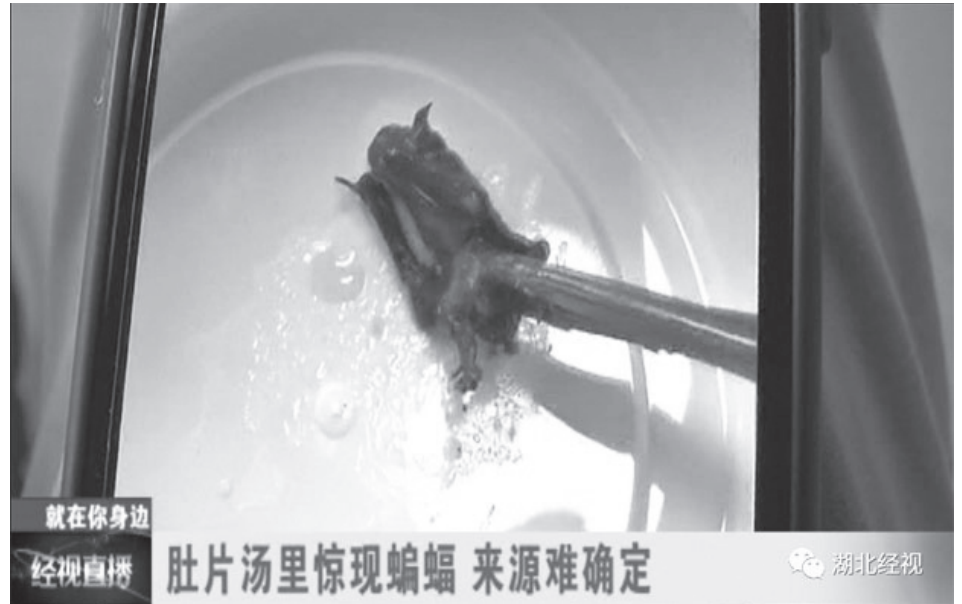
첸씨의 어머니는 처음에 향신료의 일종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어머니는 후베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젓가락으로 들춰보니 날개와 귀가 보였다. 심지어 털까지 있었다"며 치를 떨었다.

일가족은 박쥐를 들고 식당으로 쫓아갔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지역 국밥 제조업체에서 냉동된 것을 떼어다가 판다"면서 환불과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주인은 "우리가 직접 만든 국밥"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국밥은 낮에 만드는데 박쥐는 주로 밤에 활동하지 않나. 다 끓인 국밥은 곧바로 밀봉해 냉장고에 넣고, 절대 밖에 놔두지 않는다"며 제조 과정에서 박쥐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전면 부인



▲지난 10일 우한시 신저우(新洲)구에 사는 첸모씨는 집 아래층 식당에서 파는 돼지국밥을 포장해왔다. 그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국밥을 드셨지만 특이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은 국밥은 밀봉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 일가족은 박쥐를 들고 식당으로 쫓아갔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지역 국밥 제조업체에서 냉동된 것을 떼어다가 판다"면서 환불과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주인은 "우리가 직접 만든 국밥"이라고 말을 바꿨다.



했다. 그러면서 포장해간 국밥을 피해 가족이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박쥐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첸씨 가족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첸씨 어머니는 "사 온 국밥은 조금씩 덜어 먹고, 바로 밀봉해 냉장고에 넣는다. 그럼 박쥐가 스스로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소리"냐고 항변했다.

민원을 접수한 현지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박쥐가 어떻게 국밥에 들어갔는지 또 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감염 공포에 떨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가족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식당 주인은 검사 비용과 정신적 보상 비용으로 2000위안(약 35만 원)을 제안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언론은 돼지국밥에서 나온 박쥐 사체가 언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점은 감염 우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대형 냄비에 한꺼번에 서너 시간씩 푹 끓여 만드는 돼지국밥에 처음부터 박쥐가 들어 있었던 거라면 큰일 아니냐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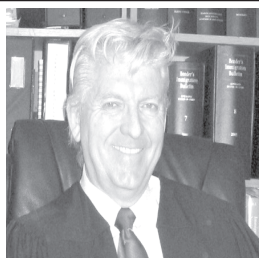
평소 해당 식당의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관리 당국은 그간의 정기 점검에서 해당 식당에 문제가 발견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변 호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 법 무 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